



지난해 와룡문화제 사주현감부임행차 광경

제16회 와룡문화제 4월 8일 축포

벚꽃향기 가득한 선진리성에서 만나는 특별한 문화체험

벚꽃 눈 내리는 봄의 향연 속에 펼쳐질 제 16회 와룡문화제가 오는 4월 8일(금)부터 11일(월)까지 구곡(救國)영혼의 안식처인 선진리성에서 공연·전시·경연·체험 등 7개 분야 50여개 종목에 걸쳐 이색적인 문화 체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축제 성공기원, 유명 연예인 등이 참여하는 신명나는 열림행사

열림행사는 4월 8일 오전 11시 정동면 성황당산성에서 시 발전과 문화제의 성공 개척을 기원하는 서제를 시작으로 저녁 6시 30분 선진리성 주차장 특설무대에서는 취타대 행진 퍼포먼스와 고려시대 사주(泗州)현감으로 분한 사천시장의 개제 선언에 이어『열림한마당』이 열려 유명가수 초청공연 등 신명나는 축하 무대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선진리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행사 풍성

문화제 이틀째인 9일(토)부터 마지막날인 11일(월)까지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벚꽃길 보물찾기를 비롯해 풍선아트, 폼아트, 쿠키만들기 등 다양한 신규 체험행사와 볼품 보물찾기, 대형 율놀이, 탁구공 불기 등 가족단위의 오락권이 새롭게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동심의 세계를 전하게 된다.

선진리성 내 특설무대에서는 관내 노인들의 한마당 잔치가 될『실버장기자랑』을 비롯한 무용·여성합창단·밴드공연과 진주·삼천포농악 등 국가중요문화재 발표공연, 우리 시 최고의 가수상을 뽑는 시민노래자랑 등 신명나는 한마당 잔치가 열린다.

선진리성 내 벚꽃장에서 고려시대 지방관인 현감이 각 향리를 돌며 순시하던 장면을 재현한『현감 민정순시 재현』행사가 마련되어 가족 나들이를 나온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망등 달기 행사는 현장 접수를 통해 개최되며, 문화제의 상징인 용을 미리 제작·설치해 관람객들의 소망을 담은 용비늘을 붙임으로써 비룡의 모습을 완성하는 소망용(龍)만들기 행사는 지난해 인기를 반영해 규모를 확대해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계획이다.

구양제, 주민복지·자원봉사박람회 동시 개최

특히 지난해 가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처음 개최되었던 구양제 행사를 문화제와 동시 개최함으로써 과거처럼 재현과 유가행렬은 물론, 다양한 전통체험행사를 통해 축제의 재미를 한층 더할 전망이다.

또한 제3회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가 열려 시민생활과 관련한 체험·전시·상담·홍보 등 2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

용을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 복지서비스의 장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문화예술회관, 조영군충, 마도갈방아소리 전시관, 용남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관소리수궁가경창대회를 비롯한 고수대회, 정가경창대회, 음악경연대회 등 대규모 전국대회가 개최되며, 각종 전시행사와 경연행사는 물론, 녹차시음회, 지역특산물판매장, 향토음식판매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와룡문화제의 제전 배경과 의미

와룡문화제의 제전 배경은 와룡의 의미가『용이 승천할 시기를 기다리며 힘을 축적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천시의 비상과 시민화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난 1995년 사천시 출범과 함께 처음 개최된 이래 지역문화예술의 총체적 결집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행사를 선진리성에서 개최함으로써 문화제 탐방은 물론, 벚꽃놀이와 다양한 문화체험, 싱싱한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지난해 행사기간동안 20여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축제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고려 제8대 현종이 와룡산과 이구산 등지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다 훗날 왕이 되었으니 와룡이 지닌 뜻과 무관하지 않으며, 현종은 자신이 유년시절을 지낸 곳이자 아버지가 묻힌 사천을 부속현에서 사주라는 주현으로 승격시켰으니 지역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QR코드로 사천관광 전국 어디서나 확인

스마트폰 접속,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항공우주산업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사천시가 QR코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디지털 신세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광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시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접속 가능한 QR코드 모바일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천관광을 화면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QR코드(Quick Response Code)는 신속하게 대담하다는 뜻으로 바코드 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를 말한다.

이용방법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스캔하여 다문 접속하면 된다.

시는 관광홍보를 위해 기존에 이용해 오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서울 종로3가역과 대전 지하철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대하여 다양한 이미지 광고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인 전용 QR코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QR코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내나라 박람회 행사장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앞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배부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QR코드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R코드 홍보용 스티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쏟다!'

3월부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사천시는 항공우주산업과 수려한 해양경관이 어우러진 관광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월 1일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관광을 목적으로 타지역에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사천에서 1개소 이상 관광지를 관람하고 적법절차에 의거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반드시 이용한 조건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내국인은 20인 이상, 외국인인 10인 이상, 숙박여

행단은 50인 이상으로 한정하고, 지원금액은 내국인은 1인 1박 기준 1만원, 2박 이상은 2만원, 외국인인 1인 1박 기준 1만5천원, 2박 이상은 3만원, 수하여행단은 1인 1박 기준 3천원, 2박 이상 6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와 관광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에 광고문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역숙박업소와 음식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달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에서 개최된 내나라 여행박람회 행사장에서 인센티브제도와 한려수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사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5천만원으로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시행하여 지역상인과 여행사로부터 좋은 반응과 관심을 얻은바 있다.

이런 시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사천관광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소에서 친절환 안내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줄 것 당부했다.

국기달기운동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국기를 나누고
가정마다 국기를 가지며
애국심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국가사랑 "國家愛"입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달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국기를 게양하는날
- 3. 1(삼일절), 6. 6(현충일), 7. 17(제헌절), 8. 15(광복절), 10. 1(국군의 날), 10. 3(개천절), 10. 9(한글날).

● 국기를 게양하는시간
- 게양시간: 오전 7시
- 강하시간: 오후 6시(3월~10월), 오후 5시(11월~2월)

● 국기를 게양하는위치
- 밖에서 바라 보아 가정의 대문이나 아파트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

중점추진사항

- 가정마다 국기 갖기 실천
- 아파트 국기꽂이 정비 및 국기 공동구매
- 각종 봉사단체 국기 나눠 주기 시민운동 전개
- 각종 행사시 기념품으로 국기 제공 권장

* 국기달기운동 문의: 사천시 총무과 총무담당 (☎831-2563),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총무담당

재활용품 수거일 변경 안내

2011년 3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요일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수거요일	동 및 서부권역	읍 권역
월	관양면, 관명면, 서포면	축동면
화	벌용동, 동서금동, 향촌동(향촌)	정동면
수	동서동(대방, 실안, 녹도) 남양동(노룡, 대포)	사남면
목	향촌동(봉이, 이궁사, 남일대)	사천읍(사주리 제외)
금	동서동(동동, 서동), 선구동(선구)	용현면
토	선구동(동림, 좌룡) 남양동(송포, 죽림, 신백, 백천)	사천읍(사주리)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기존대로 별도 수거일에 배출

- 배출시간: 수거전날 저녁부터 뒷날 04시까지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끈으로 묶거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봉투에 넣어 자기 집 앞에 배출하면 됩니다.
 - ▶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류, 합성수지류, 비닐류 등으로 분류
 - ▶ 화장실 휴지, 신발 등 일반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배출 금지
 - ⇒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종류	품 목	
	재활용 수거 품목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종이류	●신문지, 우유팩, 음료수팩 ●책자, 광학, 달력, 종이상자 등	●비닐코팅지, 비닐류 등은 이물질 제거 후 반듯하게 묶음 ●우유팩 등은 물로 헹개 압착 또는 퍼서 말린 후 배출

캔 류	●음료, 식용류 캔 ●부탄가스, 샴주제 용기 등	●페인트통, 페유통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 ●부탄가스 등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 배출
고철류	●공구류, 철사, 못, 철관 등 쇠붙이 ●양은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사시 등	●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	●고철 이외의 이물질 제거 후 금속 성분만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일반병, 농약병	●화장품병, 도자기, 화분, 사그릇 등 ●거울, 전구, 관유리, 자동차유리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농약병은 일반병과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플라 스틱	●생수병, 음료수병, 간장병, 식용유병, 물통, 샴주, 세제류 용기 ●막걸리통, 우유병 ●상자류(맥주, 플라 등), 물바가지, 쓰레기통 ●요구르트 용기	●PVC제품(파이프) ●전화기, 휴대폰, 다리미 ●식기류, 장난감(완구), 옷걸이 ●면도기, 시계, 칫솔, 비디오 테이프 등 복합재질 제품	●요구르트 용기는 별도 분리배출(물로 헹군 후 배출)
스티 로 폼	●가정에서 구입한 농·축산물용 스티로폼 상자 ●1회용 받침접시 ●건축용 스티로폼, 가전제품 스티로폼	●바다부표 및 양식장 스티로폼 단, 녹조류 등 이물질 제거는 재활용 가능	●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로 묶어서 배출
봉 지 비닐류	●1회용 비닐봉투 ●필름류 포장재 ●음식료품(빵, 라면, 과자, 햄, 치즈 등) 포장재 ●세제류(삼푸, 린스 등) 리필용 포장재 ●과일, 건어물 포장재 등	●각종 포장재 비닐 등	●필름포장재는 펼쳐서 차곡차곡 누른 뒤 따로 묶어서 배출(라면스프, 양념장 봉지 등은 종량제 봉투에 따로 버림) ●봉지 비닐류는 일정량 이상 모아서 배출
패 형 광 등	●막대형, 원형 형광등	●백열등 전구, 전구형 형광등	●외피를 벗기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기 타	●의류, 장관류, 패건전지 등	●이불, 베개, 카펫, 인형 등	●가지런히 정리한 후 묶어서 배출 ●패건전지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수거함에 배출

사천관광·특산물 전국에 알렸다

지난달 24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사천시가 지역특산물의 우수성과 관광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광마케팅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최된 내나라 여행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여행박람회로 국내 300여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여 연인원 10만여명이 참가하는 박람회이다.

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산업과 한려해상 경관이 어우러진 삼천포대교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관광부스에 게시하고 대외인인과 녹차, 멸치, 쥐포 등의 지역특산품을 전시하고 시작하는 행사를 가졌다.

매일 홍보부스에서는 영산물을 방문하고 세계 타국축제와 항공우주엑스포 등 행사 개최 홍보와 주요관광지 소개 등 홍보전단지도 배부하고, 160여명의 수학여행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학여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참가자의 흥미와 관심으로 사천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천을 바로알자!" 열전퀴즈쇼의 이벤트

시간을 매일 마련하여 지역특산품인 멸치를 퀴즈경품으로 제공했다.

특히, 항공우주엑스포와 항공우주산업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T-50모형의 종이비행기 2,000대를 준비

하여 참가자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형비행기 만들기 무료 체험도 가졌다.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향우동성

출향인 애향운동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출범 10차년도 맞아 기념비를 세우자

과연, 이 애향운동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 한다면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까? 1999년에 구상했고, 2002년 3월 24일 운동본부를 창립, 출범하던 때의 그런 걱정은 이제는 없다. 너무 멀리 지나왔기에 그런 근심은 묻혀진지 오래다. 초창기에는 모 중앙지의 기자라며 전화가 와서 "전부터 정치하려고 한다는 그 분 아니오?" 하면서 물어왔다. 고위 공직을 지낸 선배 한 분은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면 믿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해야지" 했다. 다 지난 일이 됐지만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다.

2004년 부산 서면역 사진전시회 개막식 때 참석하신 사천시 모국장이 "오래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려고요?" 하길래 "건널목 신호등을 지키는데 교육홍보기간이 10년이 걸렸다고 들었고,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을 정착시키는데 10년 세월이 걸렸다고 하니,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데 10년은 기본으로 해야겠지요."라고 답했던 기억이 있다.

그 동안 전국 각지 마라톤대회 출전, 등산, 축제, 군중집회 행사장에 현수막걸기, 팸플릿나누기 행사, 사진보급행사 등 홍보를 200여 회 하였고, 전국대도시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사천삼천포에 가보자]주제 사진작품 전시회를 6차례 하였다. 우리 고장의 멋진 사진 수백 장도 많은 사람들의 사무실과 업소에 걸려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대우 향우회 겸 '43가보자 운동' 대구본부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런 전국의 행사 때마다 함께 참여하여 홍보해 준 우리 출향인들이 수 천 명은 된다. 이제는 세계와 전 국민을 상대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자는 우리 출향인 애향운동 [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을 모르는 향우는 거의 없다.

예전에 이 운동을 시작 할 무렵 '43가보자' 운동에 참여 해 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뜻이 없네요." "거기 뭐 볼 거 있다고" 라고 하던 말에서 지금은 '정말 대단하다.' '자랑할 만한 곳'이라는 생각에 뜻을 같이 하고 긍정적으로 돌아져 있다. 모두가 "그곳이 내 고향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당당히 말하는 것이다.

그 자신감을 심기 위해, 재개발

후 한국 최고의 명소인 '서울 청계광장'에서 7번 방문하여 장소 사용허가를 받아 어렵게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대구와 부산 지하철역에서는 남이 못하는 1년간의 장기 사진전시회를 성사 시켰다. 그리고 최고 명문대, 한국의 차후 리더들이 많이 보라고 '서울대역'에서 사진전을 가졌다. 이곳들은 뒷골목이 아닌 최고의 앞자리이다.

이 출향인 애향운동이 고향에 크게 덕을 보인 것은 없다. 단지, 관광객 유치에 불을 지핀 미미한 역할이 된 것일 뿐이다. 사천시 관광 담당부서와 지역 관광업계가 고향을 떠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자국민이 더 노력한 덕분에 관광객이 연 280만 명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출향인은 대도시에 나가 있는 우리 지역의 참병, 그 12만을 잘 쓰면 그 역할이 대단히 크고 긴요할 것이다. 야구시합에서 주자가 오기 전에 2루나 3루에 수비수가 침병으로 먼저 던지고 서 있으면 꼼짝 마라. 역지로는 더욱 안 되고 조급해 할 수도 없다. 가을 단풍이 서서히 온 산에 붉게 물들 듯 향우들은 나이에 비례해서 고향사랑도 짙어 갈 것이다.

이 운동은 단방약이 아니고 영구히 생기를 뿜어주는 이 지역의 그윽한 향기이다. 우리 운동의 가는 길이 험난하면 앉아서 쉬었다 가고 주유하면서 계속 갈 것이다.

앞으로, 2007년 발간한 '43애향운동 5년사' 책자에서 예시한 대로 우리 출향인 애향운동 10주년을 맞아 이 지역에 사람이 사는 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자랑하는 이 운동이 지속되도록 [사천삼천포에 가보자]운동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남아있다.

그 돌에는 살아 있는 자의 이름은 없을 것이고, 오로지 다음 글이 쓰여 있을 것이다.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애향운동 깃발을 들고 가다 떨어뜨리면 떨어진 깃발을 보고 누군가 집어 들고 갈 것이고, 또 떨어져 있으면 다음 분 사람이 들고 나아갈 것이다. 이 지역에 사람이 사는 한 이 도시를 알리고 자랑하는 일이 천천히 지속되는 한 우리 지역은 무궁할 것.

2011. 3. .
출향인 애향운동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
최창 천봉근

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연장 신청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

1. 목 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식품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논 4만ha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를 유도하여 쌀 20만톤 이상 감축

4.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논에 타작물재배사업) 추진계획

○ 사업대상면적 : 사천시 220ha('10년 벼 재배면적 4,848ha의 4.5%)

○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기관

○ 신청기간 : 2011. 1. 5 ~ 3. 31(연장)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사업대상 논 및 농가

○ '10년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쌀 변동지불금'이라 함)을 받은 논 농가

○ '10년 벼를 재배한 논(벼를 재배하고 쌀변동지불금을 받지 못한 논으로 벼 재배 사실확인서 징구(추가))

○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 농가
* 사업신청자는 위 논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포함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대자 및 제외자 <선정 우대 순위>

- ① '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
- ② 늘녘별,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신청자
- ③ '10년 쌀 변동지불금을 받은 논
- ④ 사업신청 면적이 많은 신청자
- ⑤ 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품목 및 논

- ①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 ② 논외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 논

○ 지원 단가 : 30만원/10a (300원/㎡)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며 농가당 최대면적 10a이상

○ 농가별 신청면적 최고한도는 없음

○ 지원대상 작물 : 1년생 및 다년생(多年生)

○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외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 안정을 고려 <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사항>

- 다년생작물은 비지흥지역 위주로 허용하며,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보조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 논외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
- 과수류의 경우 농가단위 대체 과원 위주로 지원 등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식량작물담당(☎831-3874),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2011년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2011년 3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신청자(보호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의사항 : 시청 사회복지과(☎831-2666),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2011년도 보육료 지원 확대 주요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2010년도	2011년도
만0~5세대상자	소득하위 50%이하(421/438만명)	소득하위 70%이하(421/480만명)
맞벌이 보육료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 금액	부부 합산 소득의 25% 금액
다문화가정	지원없음	소득·재산 관계없이 전액 지원

* 2011년 보육료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하위 70%이하)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영유아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단위 : 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기본보육료	361,000	174,000	115,000	-	-
시간연장보육료	시간당 2,700원 (장애아 3,700원)				
장애아(만12세 이하)	394,000				

■ 양육수당 지원(2011년 1월부터 시행)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2008. 2. 1일 이후 출생아동)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20만원 (12개월 미만 : 20만원, 24개월 미만 : 15만원, 36개월 미만 : 10만원)

- 양육수당 소득인정액 기준(차상위 이하 :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 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2011. 2월 사천시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 사천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수돗물서비스센터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매일 7개항목, 매주 7개항목, 매월 58개항목, 매월 16인 이상 노후관 15개항목, 매월 가정수도꼭지 9개항목, 매분기 급수과정별 11개항목)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2월 평평정수장 및 평평상수도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상수도 정수장

정 수 장 명	위 치	관명	관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정수장
위 치	관명	관명	관명	관명
검사항목(총58개)	수질 기준	수질 검사 결과	수질 검사 결과	수질 검사 결과
1 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불소	1.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 암모니아성질소	0.5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질산성질소	10mg/L 이하	2.9	1.2	1.2
6 잔류염소	4.0mg/L 이하	0.78	0.74	0.74
7 총트리할로메탄	0.1mg/L 이하	0.013	0.017	0.017
8 클로로포름	0.08mg/L 이하	0.007	0.011	0.011
9 경도	300mg/L 이하	58	46	46
10 수소이온농도	5.8~8.5	7.8	7.4	7.4
11 중금속(총)	500mg/L 이하	127	115	115
12 철	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3 탁도	0.5 NTU이하	0.13	0.04	0.04
14 냄새(이취 없을 것), 맛(이미 없을 것)				적 합
15 할로아세테이트의 13개 항목				각 정수장별 불검출 및 수질기준 이하
16 대장균의 28개 항목				각 정수장별 불검출

2. 검사결과

- 2월중 평평정수장 및 평평상수도에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 58개 전 항목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로 적합하며,
- 수돗물에 소독 냄새가 나는 것은 수인성전염병 예방 및 2차 오염예방을 위하여 염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보리차 등을 넣어 끓여 드시거나, 냉정고에 넣어두고 차게 해서 드시면 보다 맛있고 드실 수 있습니다.

2011년 2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장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1. 3. 4 ~ 3. 25(20일간)
- 장 소 : 시청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1. 3. 4 ~ 3. 25(20일간)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5-831-2875, 2883)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 안내

납세편의 증대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신고기간 중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 래 -

구 분	신고기간	공 제 내 역
1월중에 신고 납부 하는 경우	1/16~1/31	연세액(1/1~12/31)의 10%공제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6/16~6/30	2기분세액(7/1~12/31)의 10%공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3/16~3/31	4/1~12/31기간 세액의 10%공제
	9/16~9/30	10/1~12/31기간 세액의 10%공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55-831-2870) 및 해당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해집니다

① 납세고지서, 이젠 지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내역을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운 분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지역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세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수 있는 은행 : 일반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22개 기관)

③ 신용카드 납부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다르고 인터넷에서는 납세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은행 CD/ATM에서도 신용카드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납부할 때도 입력사항을 없앴습니다.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세무과(☎831-2858)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14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

— 지난 제178호(2월)에서 계속합니다. —

강태석 의원 5분 자유발언

다산거꾸 한나라당 소속 강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과 동료 의원, 그리고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존경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경제의 주축인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천혜의 바다 환경조건으로 수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잘 발달된 어업조건은 조상대대로 우리 지역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어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어, 쥐치포 등 수산물 가공 산업도 활발하여 지역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는 등 그야말로 24시간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창하던 수산업이 해양 오염 등으로 지렁이갈과 함께, 새로운 어로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남획과



불법어로 등으로 쇠퇴하던 종설상가상으로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 국제적인 해양어업 변화로 더욱 더 어렵게 되어 그야말로 불개진 항구라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도 도서지역 마을폐수처리시설 가동, 바다목장화 사업, 치어 방류사업, 감척사업과 불법어업방지 없애기 등 꾸준한 노력하여 온 결과 최근에는 어종회복과 어획량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관계자들의 노력에 위와 경의를 보내면서 이전의 수산중심지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더 적극적인 해양 수산 시책의 추진입니다. 대구어종의 부활로 새롭게 활력을 찾고 있는 거제를 보면 어떠한 어려움

도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우리 지역의 수산 해양 분야는 조상대대로 바다를 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결코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절박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우리 시도 기존의 관행어업과 연근해의 좁은 시야에서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우리는 물론 후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께서도 해양 수산 전문가이기에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부흥기를 만들 적인자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장방향인 해양수산이라는 구호를 현실화하고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의 전문가 또는 전문조직으로 육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현실에 맞는 전문 인력의 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해양 수산업과 함께 우리 시 조직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책이나 산업분야도 국가나 지방행정의 의지나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곧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 분야도 전문가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수동적에서 더 적극적인 수산행정을 이끌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막 살아나는 해양수산 분야도 그동안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잘 이해하시고, 이에 맞는 조직과 해양수산직렬의 전문가나 젊은 피의 인력 확충을 건의와 함께 촉구합니다. 해양수산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지금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기로 자긍심 회복과 새로운 수산브랜드 개발 등 제도를 할 수 있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 확충을 건의와 함께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석 의원 시정질문

가선거꾸 출신 민주노동당 시의원 최용석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나 지방행정의 의지나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곧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 분야도 전문가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수동적에서 더 적극적인 수산행정을 이끌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막 살아나는 해양수산 분야도 그동안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잘 이해하시고, 이에 맞는 조직과 해양수산직렬의 전문가나 젊은 피의 인력 확충을 건의와 함께 촉구합니다. 해양수산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지금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기로 자긍심 회복과 새로운 수산브랜드 개발 등 제도를 할 수 있는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 확충을 건의와 함께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청소년문화센터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문제점, 시 재정 여건 문제, 그리고 부실한 가로수 관리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는「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과 사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극적인 추진과 그에 맞는 인력과 조직 확충을 건의와 함께 거듭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리가 먼 것이며,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는 지역 토착비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물

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직원 채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누적되어 온 시정 및 시정 관련 기관·단체 직원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이것 외에도 직원들의 복무 실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외근의 등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가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도 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일정 부분이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대 학원 수강, 대학 출강, 다른 시·군으로부터 외부강의에 있어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외부 강의로 등에 대한 정확한 신고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사천시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이 주업무입니다. 그 러함에도 직원들의 이런 복무 실태는 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근거가 무엇이며, 담당 계정의 말 처럼 법적 문제가 없고 다른 기관과도 감사할 요구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또한「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이사장도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신청하고 자기가 심사하는 모 양인데 과연 공정한 심사인지 합 법을 가장한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등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 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2009년 6월말 퇴직한 전직 시 고위 공무원이 다음달 바로 센터장으로 채용되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낙하산 혹은 보은인사로 여겨집니다. 또 2010년도 행정원 채용과 관련하여 학력 기준을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상담보조를 겸한다고 해도 행정원의 자격 기준을 석사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일관성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직원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채용 요건에 빠져 있는데 이것 역시 상식의 선을 벗어난다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듯 정 부가 외치고 있는 공정사회와는

이 적발될 경우 취득세율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대상 일제조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누장 등 총 4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적발될 경우 취득세율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대상 일제조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누장 등 총 4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적발될 경우 취득세율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대상 일제조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누장 등 총 4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체육종목 자매결연 서포터즈 운영

사천시는 우수선수를 육성 발굴하고 선수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모든 부동산 1만 9천여필지가 대상이 되며 조사 결과 위반사실

위터파크 등을 건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지난 12월 14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도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금고에 2008년 이전만 해도 평균 1.200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었는데 2009년부터 시작된 조기집행 등으로 그 금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50억 원이 상이된 이자수입이 2011년에는 23억 원 정도로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자주세입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 조기집행 등으로 이자수입마저 급감한다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정부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이행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 외에도 대부분의 공사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다보니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어 힘들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또한 소모품 등 물품을 상반기에 집중 구매해 쌓아두는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 활성화 취지와는 멀어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내년도 정부시책인 조기집행 사업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기간에 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도 예방하고자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9년도 수양초등학교 앞에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변에는 안전 펜스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는 보기에도 미망한 수준입니다.

나무를 목목부터 심어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로수를 심으면서 아이들 손가락 굵기의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가지와 몸체가 누군가에게 의 해 부러지거나 꺾여 있습니다. 나무의 굵기나 높이가 훼손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가로수의 식재 경위와 관리 현황 그리고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한 지역개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 주면 숲 가꾸기 달려온 올해가 마무리 됩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일들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관계로 답변자료는 게재하지 못했습니다.

조익래 의원 시정질문

라산거꾸 출신 민주당 조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요지는 도민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한 문제를 비롯하여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체전 개최 시 경기 진행방식은 우리 시의 여건상 종목별로 각 지역에 분산하여 개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목별 경기장 활용 계획과 경기 개최 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련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대체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획을 수립 중이라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각 경기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검토하는데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행사는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체전 유치와 성공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소 비주류라고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과 낙후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부 3개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지역에서도 2~3개 정도의 경기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기반이 취약한 서부 3개면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민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2~3개 정도의 경기가 서부 3개면에서도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2013년 도민체전 유치는 어느 정도 가능하며 유치가 따른 문제점이나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선정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경기장 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갈등 조정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면 비토관광단지 조성계획 지역 내 산림청 소유 국유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포면 비토섬은 수십 년 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하기 전부터 행정에서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포면민들은 이와 같은 우리 시 행정의 약속을 믿고 1989년부터 주민 자력으로 면내 전체 간선도로변에 뱃꽃가로수를 식재하여 뱃꽃 길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기를 22여 년이 흘러 마침내 서포면 전선도로변에는 지금과 같은 뱃꽃 가로수길이 조성된 것입니다. 2010년 6월 성목이 된 뱃꽃가로수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 등 권한 일체를 아무 조건 없이 시로 이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포면민들은 2001년부터 비토섬 하봉지역에 있는 국유림 219,629㎡에 대한 대단위 뱃꽃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매년 3월 31일 뱃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정만규 시장님께서도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토 하봉지역은 총면적 317,794㎡ 중 사유지 13,000㎡, 산림청 소유 국유지 219,629㎡, 사유지 85,165㎡로 국·공유지 면적이 232,629㎡로 전체 73%입니다. 우리 시가 이 땅을 구입하여 비토관광단지 개발 등 현안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열악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비토관광지 조성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포면민들은 비토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시에 값싸고 많은 면적의 국유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비싼 사유지에 비토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비토관광단지 조성계획에 하봉지역 국유지를 편입시킨 후 219,629㎡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땅의 ㎡당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060원여 총 구입 예상 금액은 대략 10억 원 정도입니다. 비토섬을 주민들은 하봉지역 국유지를 우리 시가 구입 후 그곳에 비토관광단지를 조성해줄 것을 청와대, 산림청, 우리 시에 건의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의 건의에 대해 사천시가 공공 및 공공용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을 요청하면「국유림

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토·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끝으로 서포면 노인건강센터 목욕탕 건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면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면 서포면 지체와 비토에서는 목욕탕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의 캐리비지 센터가 노인들은 목욕하기 위하여 20km 이상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포지역의 주민의 건강과 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이 목욕탕 설치와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인건강센터에는 목욕탕과 노인들의 휴게시설 및 노인건강 관리에 필요한 운동기구와 안마기 등 간단한 근육이완 보조기구를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포면에 노인건강센터를 신축하고 그곳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면 경인년이 가고 신묘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소원은 내년엔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결

사천시의회(의장 최동식)는 제14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임시회 첫날인 11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천시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심의하였으며,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건축행정절차 안내' 책자 제작·배포

사천시는 3월「건축행정절차 안내」책자를 발간해 해당 실·과·소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역 건축사사무소에 배포하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 방문하여 건축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책자는 총 20페이지 분량으로 난해한 건축법 및 해당관련법령의 건축민원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절차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2011년 건축과 소관 시책사업 등을 소개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안

내한다. 안내책자의 주요내용은 건축행정절차, 건축일반사항, 불법건축물 및 이행강제금제도, 2011년 사천시(건축과) 시책사업 등 총 4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누장 등기 신청자 일제조사 추진

사천시는 3월부터 3개월동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일제 조사한다.

이번에 일제 조사하는 대상은 최근 3년동안 소유권이 이전된 모든 부동산 1만 9천여필지가 대상이 되며 조사 결과 위반사실

이 적발될 경우 취득세율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대상 일제조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누장 등 총 4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적발될 경우 취득세율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대상 일제조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누장 등 총 4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체육종목 자매결연 서포터즈 운영

사천시는 우수선수를 육성 발굴하고 선수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모든 부동산 1만 9천여필지가 대상이 되며 조사 결과 위반사실

이 적발될 경우 취득세율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 대상 일제조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누장 등 총 4개 분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체육종목 자매결연 서포터즈 운영

사천시는 우수선수를 육성 발굴하고 선수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모든 부동산 1만 9천여필지가 대상이 되며 조사 결과 위반사실

희망2011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천시>

▲사천네트워크 180만원, 사천시새마을회 30만원

<사천읍>

▲사천읍적십자봉사회 10만원 ▲선인리 부녀회 10만원 ▲강동구 50만원, 자전기 2대 ▲사천읍 이웃돕기 동전모금 14만5천원 ▲사주리 대방빌리지 주민일동 10만원 ▲수석1리 주민일동 10만원 ▲수석1리 경로회 일동 10만원 ▲금곡리 주민일동 10만원 ▲운항관제대 19만5천원 ▲국방기술품질원 흥영준 사천센터장의 직원일동 32만4천원 ▲정의1리 경로회원 일동 10만원 ▲제3훈련비행단군무원단 30만원 ▲노숙자 99만원 ▲영농식육점 24만7천원 ▲이안아파트 주민일동 25만원 ▲보급대대 20만원 ▲수석6리 주민일동 10만원 ▲수양로타리클럽 100만원 ▲왕들식당 1백5만원 ▲최진호(견우회) 10만원 ▲정계규(사천교회) 230만원 ▲제34방공통제전대 20만원

<정동면>

▲수정경로회원일동 10만원 ▲동계6리경로회원일동 5만원 ▲고읍마을부녀회원일동 5만원 ▲노천경로회원일동 10만원 ▲소곡경로회원일동 10만원 ▲화암경로회원일동 10만원 ▲동계1경로회원일동 10만원 ▲동정1경로회원일동 10만원 ▲송보@경로회원일동 5만원 ▲대산경로회원일동

10만원 ▲수청아랫담경로회원 10만원 ▲북상경로회원일동 5만원 ▲학촌경로회원일동 10만원 ▲농업경영인회원일동 10만원 ▲정동농협 사랑의모금할 13만4천원 ▲여육경로회원일동 10만원 ▲청하골 숯불갈비 이권식 20만원 ▲수정자연유치원 교직원 및 원아일동 20만5천원

<사남면>

▲용두마을주민일동 15만원 ▲대성사 보존회원일동 30만원

<용현면>

▲용정마을 주민일동 10만원 ▲전국이통장협의회 사천지회 10만원 ▲평기마을 주민일동 10만원 ▲평송마을 주민일동 10만원 ▲구월마을 주민일동 10만원 ▲신영마을 주민일동 10만원 ▲금문마을 주민일동 10만원 ▲용현면 새마을지도자회 10만원 ▲통양마을 주민일동 10만원 ▲용현면 사랑의열매모금 1만4백원

<축동면>

▲축동면 신기마을 주민일동 1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관리단백미(10kg) 20포, 라면 10박스 ▲축동면 새마을금고 30만원 ▲축동면 체육회원일동 10만원

<곤양면>

▲대진리 석문마을 주민

일동 10만원 ▲북곡리 목실마을 주민일동 10만원 ▲곤양면청년회 25만원 ▲부산돌곰창 조영일 10만원 ▲송전리 당전마을 주민일동 10만원 ▲곤양면의용소방대 46만3천원 ▲곤양주유소, 곤양참마트 최재권 27만원 ▲중항리 이재규 2백13만8천원 ▲곤양면 이장단장 조복래 100만원

<곤명면>

▲마곡리 경로당 회원일동 10만원 ▲신기마을 주민일동 10만원 ▲삼정리 삼정마을 주민일동 10만원 ▲바르게살기운동곤명면협의회 10만원 ▲만지마을 주민일동 10만원

<서포면>

▲서포면자율방범대 330만원 ▲조곡경로당 회원일동 10만원 ▲서포면 다령리 박주수 1만원 ▲서삼리이온스클럽 19만원 ▲사천시 골프협회 57만원

<동서동>

▲33동 주민일동 17만원 ▲남척석유주식회사 300만원 ▲19동 주민일동 24만원 ▲25동 주민일동 15만원 ▲서동이북대 11만4천원 ▲동동활어화센터 30인의단체 20만원

<선구동>

▲신양수산 전석남 100만원 ▲선구동 주민센터 모금할 22만3천원 ▲삼천포나 이카데미점 김미현 백미(20kg) 10포

<동서금동>

▲동서금동 사랑의 열매모금 188만원 ▲동금동 5동 경로당 10만원 ▲복원회집 이봉우 백미(20kg) 10포

<별동>

▲25시 자유시단 성금모금할 7만3천원 ▲용두경로회 10만원 ▲용두마을청년회 10만원 ▲용두마을부녀회 10만원 ▲용두마을 주민일동 30만원 ▲31동 주민일동 18만원 ▲사천시의용소방대본대 30만원 ▲3동 주민일동 75만5천원 ▲29동 주민일동 8만원 ▲별동주민센터 성금모금할 4만1천원 ▲희갑생 5만원 ▲서맹집 1만원 ▲신선사우나 10만원 ▲별동동장협의회 100만원 ▲사천별동자율방범대 10만원 ▲유박관계사무소 5만원 ▲10동 주민일동 20만5천원

<항촌동>

▲항하마을 주민일동 10만원 ▲전기공사협회 사천지회 회원 일동 30만원

<남양동>

▲송포동 박정갑 10만원 ▲상일건설 문수생 20만원 ▲남양동주민센터 이웃돕기성금모금할 9만5천원

※계재된 성금기탁자 명단은 2011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성금기탁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개최

사천시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지난 2월 11일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서 2011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400여 개 중소기업체 중 관심 있는 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도 등에서 참석하여 기관별 지원시책에 대하여 설명,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이 수록된 책자를 배부하였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각종 지원책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가 기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간담회 가저

사천시는 지난 2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29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앞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국·도정에 관심이 많은 20~50대 주부를 상대로 온라인 공개모집하여 선발, 2013년 1월까지 생활공감 홈페이지(www.happylife.go.kr)에서 온라인 활동 및 월례회, 나눔 봉사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원 선출, 제3기 주부모니터단 운영계획과 생활공감정책 제안요령 설명을 비롯해 운영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한편 시는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생활공감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1공무원 작성

생명의 채소 '사천꽃마늘'

기술지원과 소득작물담당 장상권



사천 꽃마늘의 태동

와룡산에 둘러싸여 펼쳐진 논과 밭에 찬바람과 눈비를 맞으면서 한겨울을 나고 있는 생명의 채소 사천꽃마늘이 있다. 150년 이전부터 사천 남양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어 오면서 자연환경에 맞는 품종으로 고경화 되어 1960년경 이전부터 열차를 이용하여 인근 진주지역에 판매가 되면서 각 가정마다 조금씩 재배되어 오다가 2005년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꽃마늘의 우수성을 체계화 시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부처님을 찾을려면 시정(市井)으로 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참으로 귀한 것은 오히려 평범한 곳에 있다는 뜻으로 유구한 세월 속에 묻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자원이 발견되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사천꽃마늘이 시작된 역사다.

신이 주신 선물 사천꽃마늘

꽃마늘은 아직 덜 여문 마늘이라는 뜻으로 덜 여문 마늘의 잎과 줄기와 뿌리 등을 식용으로 하여 요즘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베이비(baby) 채소다. 사천꽃마늘의 특징은 뿌리 부분이 희고 길며, 줄기는 붉은색이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절간이 짧고 조직 또한 부드럽고 매운맛이 강하지 않은 것이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부분으로 따뜻한 해안을 끼고 해풍을 맞고 자란 꽃마늘은 겨우내 땅의 기운을 받아 생명의 채소로 탄생되어 우리의 몸에 기를 불어 넣는 겨울철에 으뜸살한 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사천지역에 신이 주신 선물이다.

브랜드 '뿌리째 먹는 꽃마늘'

다이아몬드 1캐럿을 생산하려면 250톤의 바위를 깨야 하고 제대로 가공을 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천꽃마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시범 및 지원사업의 시작의 원년 2006년에는 '사천꽃마늘'이라 이름을 지었고, 2007년 2월 5일에는 사천꽃마늘 명품을 위한 협의회에서 '뿌리째 먹는 꽃마늘'이라는 브랜드를 확정지어 청결한, 신선한, 꽃마늘 전체를 식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인근지역과 차별화 하는데 시급적이 되고 있다.

뽕뽕 문진 꽃마늘 농업인

사천꽃마늘 재배농업인의 대부분이 고령화된 농업인이다. 초상이 물려준 자원을 지키면서 꽃마늘로 생계를 꾸려온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2006년 3월 3일 사천시 꽃마늘연구회가 결성, 회장 이일건씨가 추대되면서 꽃마늘 시세가 개인 상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과 계통출하를 통해서 꽃마늘 가격이 차츰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9년 4월 27일에는 사천꽃마늘 영농조합연합회를 만들어 재배 농업인들 간에 규합을 통해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게 되었다.

사천꽃마늘 집중과 선택

꽃마늘 사업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시기는 2007년부터다. 진흥청의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품질관리사업비

7,000만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꽃마늘을 세척하는 선별장과 전곡 최초로 꽃마늘 포장지를 제작하여 출하하던 것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 꽃마늘 가격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꽃마늘단지조성사업, 꽃마늘조기재배사업, 꽃마늘증식포, 꽃마늘추착구마줄기사업, 2010년에는 신선채소패키지 사업 등 많은 사업이 투입되면서 꽃마늘 생산성과 상품화에 주력 지역 명품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꽃마늘이 금마늘이 되면서

노지작물에서 m에 7,000원이 되는 작물은 그리 많지는 않다. 벼농사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드는 것은 물론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12월 하순부터 익던 4월 상순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월동체소로서 희소성, 소비자들로부터 웰빙채소의 가치성을 인정받아 2005년 당시 3월에 kg에 400원~500원 하던 꽃마늘이 2008년부터 kg에 1,500원~2,500원에 거래 되면서 꽃마늘이 금마늘이 되어 지역의 효자품목으로 자리 굳힘을 하고 있다.

우리의 꿈 꽃마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천꽃마늘이 지리적표시제 제72호로 2010년 11월 8일 등록되었다. 전국에 72번째요, 경남으로는 6번째로 이것은 자랑스런 일이다. 사천꽃마늘은 우리 주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품목이고 상품이다. 이는 사천시농업기술센터의 적극성과 농업인들의 관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 생각한다. 2007년부터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계획을 세운지 3년만의 쾌거이다. 2007년의 KBS '8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극' 등 전국방송을 통한 홍보와 지역보도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인근지역과 마늘 주산지의 꽃마늘과 차별을 객관화시켜 얻어낸 결과이기에 사천꽃마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처음처럼

사천꽃마늘은 행정, 농협, 농업인이 협력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 초고속 질주를 하여 오늘까지 왔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지리적표시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하였지만 여기에 안주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인줄 모른다. 우리 꽃마늘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품목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유기농산물로 가기 위한 생산방식, 유통, 홍보, 가공, 요리 등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사천꽃마늘은 분명히 어떤 지역농산물 보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사천농업의 희망인 꽃마늘을 처음처럼 숙련한 자세로 보면서 내일을 대비하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한국어 수업 안내
□ 개강식
○ 일 시 : 2011. 3. 3(목) 10시
○ 장 소 : 사천YWCA교육장 2층
○ 대 상 : 결혼이민자 및 가족
○ 내 용 : 개강식 및 레벨테스트, 반 편성 및 지도교사 만남
○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자우개, 노트, 볼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증명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반드시 지참
□ 수업 일정
○ 교육기간 : 2011. 3. 8 ~ 2011. 7. 31(매주 화·목)
○ 교육장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동지역)
○ 수업내용 : 개강식을 통해 1단계~4단계별 테스트를 거쳐 반 편성 후 수준별 수업
○ 문의 :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담당 ☎332-0345, 070-8988-0346
※ 하반기 수업 : 2011. 9. 1 ~ 12. 31(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운영)

2011년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용자규모 : 200억원
2. 접수기간 : 2011. 3. 2 ~ 자금소진시 까지
3. 접 수 처 :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 ☎758-6701
4. 지원대상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수료하였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받은 자
5. 지원조건
○ 지원방식 : 순수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 대출금리 : 3.8%(변동금리)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4년(1년 거치, 3년간 분기별 균분상환)
○ 취급은행 :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6. 구비서류 : 컨설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해당자),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7. 기타안내 : 진주소상공인지원센터 ☎758-6701로 문의 바람

2011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안내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한 학업(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활동 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자립을 지원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하는 달까지 최장 5년간 지원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8년생 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지원사업 (2010년도에 지원 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액	월 15만원	연 154만원	실비	월 10만원	월 5~2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기초수급권자가주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권자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기초수급권자)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입금 후 은행입금
비 고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1년도 신규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 복지사)
○ 문의 : 사천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831-2881

저수조(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왜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가?
수돗물 강화(개경)로 저수조는 비상 시 또는 단수 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동 시설에 대한 청소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이용자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시설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는 연1회 이상, 저수조청소는 매6개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있는가?
「수도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 대상(근거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5층 이상의 아파트,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건축법에 의한 3000㎡이상의 업무시설 2000㎡이상의 건축물로 2 이상의 용도(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학교 및 복지시설, 위탁시설, 공장, 창고시설, 공공시설물, 예식장, 공관, 금융업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사용되는 건축물
□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실시기간 : 2011. 1. 1 ~ 6. 30
□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하시려면?
○ 청소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및 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청소
☞ 저수조 청소업체

업체명	영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업체명	영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조일환경	용강동 622	조민수	(055) 835-6643 016-847-3191	푸른환경	동금동 88-4	이현찬	(055) 852-2770 010-4118-9683
영광상사	서동 159-1	강성희	(055) 835-1751 011-749-0380	보건환경	정동면 예수리 547	성기석	(055) 855-3006 011-854-2372
사천환경	동금동 158-2	송기형	(055) 835-4477 011-886-1331	대창종합관리	항촌동 943-3	박철원	(055) 834-6278 011-865-6278

○ 소정검사는 반드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
☞ 수질검사 기관 현황

상 호	영 업 소 재 지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비 고
영 공 과 학	사천읍 구암리 1683-3	이재홍	853-5661, 010-9366-2138	수질검사지정기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수질검사센터	진주시 칠암동 150	수질검사센터장	751-3545	수질검사지정기관
진주시 수질검사소	진주시 평거동 65-1	수질검사소장	835-4477	수질검사지정기관

□ 기타 문의 사항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저수조 관련 문의사항은 수도사업소 수도시설담당 ☎831-5515로 연락주시반 자재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사천읍사무소 지진뱀기 행사 가저



사천읍사무소(읍장 조명종)는 지난 2월 16일 음력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읍사무소 직원과 사천읍민 모두의 안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기원제를 지냈다.
또한 사천읍주민자치학습센터 풍물패를 필두로 사천읍 관내를 돌며 지진뱀기 행사를 가저 읍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정동면

제2회 정동면민 무사안녕을 위한 기원제 봉행



정동면발전위원회(위원장 최정경)는 지난 2월 9일 오전 10시 성황당 산성에서 제2회 정동면민 무사안녕을 위한 기원제를 봉행했다.

이날 강창수 정동면장과 최준의 정동농협장을 비롯한 정동면 발전위원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봉행한 제례에서는 1만2천여

면민과 정동면 출향인사들의 무사안녕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한편 정동면발전위원회는 지난해 2월 26일 창립하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동면민 무사안녕 기원제를 올렸으며 올해는 전국적인 구제역 여파로 면 대표인 제관들만 참석하여 기원제를 봉행하였다.

사남면

14년간 이어온 행사도 멈추게 한 구제역



사남면(면장 문홍규)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방문 차량을 마을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조를 구성하여 차량 방역소독을 함과 동시에 외부차량들의 마을 내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구제역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특히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사남면특별체육대회(주관기회장 백덕홍, 병오생(1966년생))을 2011년에는 구제역 관계로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온이 상승한 5월 15일로 연기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매년 3월 3째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남면 주민들의 친선 체육대회를 올해에는 연기하여 개최하는 관계로 더욱 앞산 체육대회를 치를 계획이다.

마을 홈페이지 개설 정보 나누는 앞산 마을

사남면 능화마을(운영자 구중우)은 2010년부터 마을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주민들의 동향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고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환갑을 넘긴 노인들로 주민들이 직접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객지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출향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 마을은 고려 8대왕 현종의 부친(안종) 묘가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마을 앞의 시원한 숲과 계곡물은 한여름 무더위에 좋은 피서지로 널리 각광받고 있어 주민들의 큰 자랑거리이다.

용현면

바르게살기운동용현면위원회, 이웃사랑 실천



바르게살기운동용현면위원회(위원장 강연모)는 지난 1월 24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 3세대를 방문하여 위문 활동을 펼쳤다.

각 세대에 4만원 상당의 라면과 쌀 10kg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말벗 되어 주기 등 설 명절을 맞아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바르게살기운동용현면위원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자연정화활동, 법질서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면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축동면

2011년 축동면 복지회관 취미교실 개강



지난 2월 10일 수강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동면복지회관 취미교실 개강식을 가졌다. 취미교실 개강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교양,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참여행정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이웃사랑과 희망나눔 전개



축동면 자원봉사회(회장 이미숙)는 지난 1월 26~27일 양일간 관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층 24세대를 방문하여 설 제수용품, 떡가래, 밀반찬 등(시가 150만원 상당)을 전달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또한 축동 스포츠 클럽(회장 정기천)은 노인요양시설인 성남두레복지원과 한미음노인요양원에 20kg들이 쌀 15포대(시가 7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으며, 장기적으로 후원을 약속하여 회원 개인 1주회(월 5,000원) 후원을 확산하고 동절기 연료 공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곤양면

설 명절 위문품 기탁

곤양면 중항리 이체규 세무사가 지난 1월 20일 4만 5천원 상당의 위문품 80세트(360여만원)를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곤양면사무소에 기탁해 왔다.

해마다 곤양면 관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이체규씨는 매주 금요일 곤양주차장 맞은편에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는 숨은 지역 공로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체규 세무사는 "비록 큰일은 아니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적은 물품이지만 관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곤명면

곤명면의용소방대,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손길

곤명면의용소방대 완사지역대(대장 김구제)는 지난 2월 17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 및 결혼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곤명면내 불우한 가구 100여의 9세대를 선정해 주택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전달하였다.

곤명면의용소방대 완사지역대는 지금까지 관내 각종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돕는데 솔선수범하는 선행이 추운 겨울 얼어붙은 지역민의 마음에 훈훈한 정이 흘러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포면

서포면의용소방대 마을에 소화기 기증

지난 2월 10일 서포면의용소방대(대장 이윤경)는 마을별로 노후화된 소화기를 교체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적극 당부하였다. 서포면의용소방대는 평소 화재로부터 내고장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앞장서왔다.

이윤경 회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관내 소방장비를 점검하여 화재발생 및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6호 119희망의 집 입주식 열려



지난 2월 16일 사천소방서는 지난해 2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서포면 내구리 정용순(71세)할머니의 스틸하우스 주택(119희망의 집) 입주식 행사를 가졌다.

119희망의 집은 총 2,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방1, 거실(주방)1, 화장실 및 욕실1 등 총 33㎡ 규모로 갖춰졌다.

한편 서포면의용(여성)소방대를 비롯한 서포면 봉사단체는 할머니를 위해 자발적인 성금 모금 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이웃돕기에 나서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동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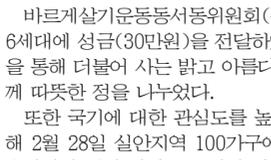
동서동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공병 수거 활동



동서동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구찬홍, 이필선)는 지난 2월 7일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민들이 그동안 모아둔 공병과 종이컵 75마대를 수거하였다.

이날 수거한 공병과 종이컵은 재활용품으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은 연말에 관내 불우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바르게살기운동동서동위원회, 봉사활동 펼쳐



바르게살기운동동서동위원회(위원장 문정열)는 지난 1월 28일 관내 저소득 6세대에 성금(3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또한 국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2월 28일 실안지역 100가구에 국기 달아주기 활동을 펼쳐 평소 국기가 훼손되거나 분실 되어도 구하기 어려워 국기달기에 곤란함을 겪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선구동

연말연시 자원봉사활동 실천



선구동 주민센터(동장 이영재)와 선구동 주민자치학습 프로그램 "우리춤 우리가락"(강사 조숙희)에서는 1월 25일 남양 양로원에서 직원 및 수강생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뜻한 이웃 사랑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노인들에게 우리춤 우리가락 공연을 시연하고 함께 우리춤 우리가락 체조를 따라 배 우면서 건강과 행복을 나누었고, 또한 정다운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관내 노인 요양시설을 월 1회 방문하여 노인들과 함께 우리춤 우리가락을 시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귀성객 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선구동 주민센터와 선구동 통장협의회 외 각 조직단체원들은 지난 1월 25일 망산공원 근처 한내천변에 집결하여 삼천포전, 도로변, 도심소공원에서 담배꽂초 등 주변 생활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 정화활동과 쓰레기 버리지 않기와 안전한 명절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주요 도로변 중심으로 환경 정화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한내천에 방치된 쓰레기 줍기 등으로 불철 호우시 쓰레기 바다 유입 방지로 깨끗한 삼천포항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삼천포전 주변 거주자들에게 생활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지 않기와 건전한 명절 보내기를 홍보하였다.

동서금동

동서금동 발마사지 봉사자들 행복을 나르다

동서금동 발마사지 봉사단(단장 서지우)은 지난 1월 3일 동금주공아파트 노모당에서 팔다리가 저리고 아픈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발마사지를 해드렸다. 이날 노인들은 자녀를조차 만져주지 않는 손과 발을 봉사단원에게 맡기



고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느끼며 연신 감사함을 전했다.

이 봉사단은 지난해 초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학습 프로그램에서 발관리 전문기술을 익혀 소외계층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건강과 행복을 나르느라' 봉사단원들은 차갑고 굳어가는 손발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노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건강을 되찾게 해 드렸다.

설맞이 대청소 실시

동서금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동서금동 조직단체는 지난 1월 24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정감 있는 고향 분위기 조성과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70명이 넘는 관내 자생단체 조직원들의 참여로 푸근한 고향 만들기에 일조하였다.

한편 현재 동서금동 통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제경길 통장은 "앞으로도 많은 자생단체들이 참여하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벌용동

벌용동 조직단체 삼천포천 환경정화활동 펼쳐



벌용동주민센터(동장 정한용)는 지난 2월 24일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11개 동 조직단체 회원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환경정화활동을 관내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 날 행사는 도로변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쓰레기와 하천변에 무단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우수 흐름을 저해하는 잡초 등을 제거하였다.

정한용 동장은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쾌적한 환경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17년간 이어온 훈훈한 이웃사랑

벌용동에는 꾸준한 불우이웃돕기로 진정한 이웃사랑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진영옥(남, 81세)씨는 지난 1월 31일 벌용동주민센터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50명을 초청, 위문금을 전달하고 훈훈한 온정을 나누었다.

이번이 33회째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진영옥씨는 1995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어려운 이웃 50명에게 1세대당 10만원씩 5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며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향촌동

'사랑의 쌀 뒤주' 설치 운영

향촌동주민자치학습위원회(위원장 정대환)는 지난 2월부터 '사랑의 쌀 뒤주'를 향촌동주민센터 입구에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사랑의 쌀 뒤주'란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된 쌀 뒤주에서 쌀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퍼 갈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생활고로 아픔을 받는 주민들에게 연중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향촌동주민자치학습위원회의 특성화 사업이다.

향촌동주민자치학습위원회는 연말연시에 대부분 한정되는 불우이웃돕기가 연중 지속될 수 있는 의도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천시민이면 누구나 쌀이 필요하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24시간 동주민센터 입구에 쌀 뒤주를 개방 해 놓았다. 또한 쌀을 기증코자 하는 주민들도 뒤주에 쌀을 넣어 주면 주위의 불우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지역사회 대표 봉사단체 동삼회 회관 준공식 열려



향촌동 대표 지역봉사단체인 동삼회 회관 준공식이 지난 2월 12일 봉남동 회관 건물 신축지에서 열렸다. 동삼회(회장 김수계)는 어버이날 경로행사를 비롯,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행사, 하절기 방역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회원들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봉사단체다. 이날 준공식에는 사천시장,

강기갑 국회의원, 이방호 지방분권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회관 신축을 축하했다. 김수계 회장은 동삼회가 1993년 탄생된 이래 20여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관 준공으로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봉사단체의 소임을 더욱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동

봉침 교실 프로그램 운영



남양동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의 요구로 개설된 봉침 교실 프로그램이 2011년 2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층 다목적실에서 전문강사(김수남)의 강의로 운영된다. 봉침의 효능, 봉침의 역사, 혈자리 등 전문 강사의 이론적인 강의를 시작으로 수강생들의 궁금한 사항 질의응답 등 열의에 찬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와 학구열을 충족시키고 있다.

남양육영재단 제8회 장학금 전달식 가저



남양육영재단(이사장 이두정, 76세)은 지난 2월 19일 남양동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학금 20명을 비롯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에서 미담사례가 되고 있다. 2004년부터 대학 진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8년째가 되는 올해에는 학생 1인당 350만원씩 20명에게 모두 7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지금까지 8년동안 총 182명에게 6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사천시 공무원 '너도 나도' 사랑의 헌혈 동참 시청광장서 채혈 경남혈액원에 기증... 헌혈증 기증도

사천시는 지난 2월 9일 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급격히 기온하강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군부대 헌혈의 어려움으로 헌혈자가 감소하여 환자 수혈에 필요한 혈액 보유량이 줄고 있어(A형, O형 많이 부족)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해서는 직장인 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헌혈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하고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동참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지원을 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였으며, 채혈한 혈액 전량은 대한적십자사(경남혈액원)에 기증했다.

또한 헌혈 당일 '헌혈증서 나눔 방'창구를 운영하여 헌혈자



에게 헌혈증서를 기증받아 백혈병과 혈액암, 출혈 등으로 다양한 혈액이 필요한 어려운 환자들에게 지원하여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도 함께 펼쳤다.

사천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전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내달 31일까지... 4·27 재보궐선거 위해

리, 주민등록이 많소,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 사실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 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

안내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 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연금 등의 부당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관내 117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사천시는 오는 3월 21일까지 관내 117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와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및 보관상태, 자격증 대여 또는 양도 행위, 이종계약서 작성, 허위 전세 물건 개첩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

발 조치하고 단속 방해 또는 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에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과 물건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은 경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55-831-2833)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간부공무원 청렴서약 결의

사천시 부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국·소장급 실과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49명은 지난 2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업무 수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 결의를 했다.

이들은 서약서에서 "업무처리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하는 어떠한 업무지시도 하지 않겠다"며 인사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수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과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부패 없는 청렴 사천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안내

사천시보건소에서는 A형간염 발생 증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고 집중비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웠던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게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 **접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 다문화 자녀 중 만12개월 이후~미취학 아동
- ▶ **접종기간** : 2011년 4월~12월
- ▶ **접종시간** : 월~금 오전 (09:00 ~ 12:00)
- ▶ **접종방법**
 - 기초접종(1회) : 만12개월 이후~6세 아동 1회 접종
 - 추가접종(1회) : 기초접종 6개월 후 1회 추가접종
- ▶ **접종장소** : 보건소, 사천읍보건소, 삼천포보건센터
- ▶ **준비물** : 의료보호(보험) 카드
- ※ 문의 : 사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 (☎831-3526)

사천공무원노조, '작은 도서관'에 도서 기증

사천공무원노조(위원장 김성관)는 관내 '작은 도서관'에 도서 1,900여권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는 '작은 도서관'에 전담돼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책임 있는 문화 보급은 물론 작은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도서기증은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독서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도서관이 도서 부족은 물론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천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도서를 공무원노조에서 모아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관 사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도서기증은 물론 공무원노조가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중!

여러분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가 세계속의 보물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스위스비영리재단인 'The New7Wonders' 주관으로 세계의 7대 자연 불가사의 즉, 세계에서 자연 비경이 가장 아름다운 7곳을 선정하는 이벤트에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로 제주가 뛰고 있다.

제주에는 세계 452곳의 후보지 가운데 3번의 예선을 거쳐 최종 28대 후보지에 동북아에서는 유일하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 인터넷과 전화투표로 참여가 가능하다.

인터넷의 경우 New7wonders재단의 홈페이지(www.new7wonders.com)나 범국민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jejuN7W.com)를 통해 가능하다.

전화투표는 001-1588-7715로 전화를 걸어 영어안내 멘트 후 '빠~' 소리가 나면 제 주코드를 7715를 누르면 감사멘트가 나오면서 종료된다.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이벤트인만큼 온 국민이 월드 캠페인의 저력을 발휘해 투표에 몰입하자"고 투표 동참을 강조했다.

시정 밖 소식

2011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령 안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

- 1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
 - 기간 주차장이나 학교 경내 등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1월 24일부터는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됨
 - ※ 단,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음

-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뺑소니 교통사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 폭주족 처벌 강화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동승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처벌됨
 - ※ 1년이하 징역·300만원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500만원이하 벌금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운전면허에 벌점 40점을 부과하며, 구속된 경우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함
 - 공동위험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아야 함

- 3 교통단속회피장치 장착 차량 운전 등 처벌 강화
 -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 ※ 20만원 벌금(범칙금 2만원) → 6월이하 징역·200만원이하 벌금
 - 아울러, 교통단속 회피장치의 근절을 위해 이러한 장치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한 사람도 함께 처벌됨

- 4 터널 내 운행·주차 시 점등 의무화 및 처벌 개선
 -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2만원)이 부과됨
 - 종전에는 주간(晝間)에도 안개·강우·강설 시 등화를 켜지 않으면, 처벌했으나, 훈시규정화됨

- 5 운전면허증 미 휴대 처벌 폐지 및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
 - 운전 중 면허증 휴대의무를 훈시규정화되, 단, 경찰관이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

- 회부할 수 있음
- 6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시 벌칙 개선
 - 종전에는 면허취소 등으로 실효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3만원) 통고처분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등 직무수행 중 실효된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를 거부·방해할 경우에만 범칙금(3만원)에 처하도록 함
- 7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 도입
 -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
 -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증가금 포함) 한도이며,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불음
 - ※ 납부대행기관 :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

- 1 자동차전용차로에서의 모든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차량"에 대해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고속도로와 달리,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의 버스"로 한정되어 있음.

【도로 유형별 특성 및 안전띠 착용대상】

구분	관리주체별 통행차량	최고속도(연도2차로)	중앙분리대 최소폭	안전띠 착용 의무대상
고속도로	국도(87개소)	자동차(이륜차) 100km/h 이하	2~3m 이상	모든 차량 → 전 좌석
자동차전용도로	국도(통행차량) 120개소	통행차량 190km/h 이하	2m 이상	고속시외버스 → 전 좌석 그 외 차량 → 일반도로와 같음
일반도로	특·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구·군도	모든 차량 80km/h 이하	1~1.5m 이상	모든 차량 → 운전석·열차석 ※ 뒷좌석은 운전자의 주의의무기부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현황('09년도)】

구분	발생	부상	사망(치사율)
고속도로	3,748건	9,636명	397명(10.6%)
자동차전용도로	7,306건	16,066명	512명(7.0%)
일반도로	220,936건	336,173명	4,929명(2.2%)

○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와 같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시 :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고용·산재보험료 자진 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 ▶ 자진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은 건설업·별목업·고용보험 자영업자
- ▶ 가장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 향상
- ▶ 2010년 확정 및 2011년 개산보험료(체납보험료 제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최장 9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제공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10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법정기한인 2011년 3

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전 주지사에 '10년도 확정 및 '11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시중은행(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팩스 접수(전지팩스 0502-766-3100), 인터넷 접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우편 접수
- ※ 2011. 2. 1 ~ 3. 31 기간 동안 토탈서비스 회원 가입 및

보험료신고 고객은 추첨을 통해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 지급

○ 납부방법 : 시중은행(우체국),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BC·국민카드(전용카드만 가능), 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카드)로 '11. 3. 31까지 납부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민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농지연금제도 2011년부터 전격 시행

- 1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
 - 농지연금이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도 할 수 있어 농촌 노인을 위한 유일한 연금제도입니다.
- 2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 월지급금 지급받는 방식은 현재 2가지가 있습니다.
 - 종신지급 방식(종신형)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
 - 기간지급 방식(기간형) 가입자 연령에 따라 선택

- 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
-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농지연금의 귀하(배우자 포함)의 연령과 농지가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이 달라집니다.
- 4 언제 상환해야 하나?
 -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귀하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용 도중에 농지연금채무를 갚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환하시고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6 얼마나 상환해야 하나?
 - 상환시점의 농지연금채권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채권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농지를 처분(경매 등)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농지처분금액(경매낙찰금액)으로 농지연금채권액을 갚고 남은 농지연금수급자(상속인)에게 돌려드리고, 농지처분금액(경매낙찰금액)으로 농지연금채권을 갚고 부족하다면 귀하나 자녀 등(상속인)에게 그 부족분을 상환하도록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신청 및 접수방법〉

- ▶ **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 ▶ **신청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지사에 비치) 및 신분증
- ▶ **상담전화** : 1577-7770(무료), 055-852-2702

사천로타리클럽 교복지원사업 펼쳐

사천로타리클럽은 어려운 학생 교복지원사업으로 봉사프로젝트 상임위원장(김종우)이 주관하여 봉사 및 행사 등에서 봉사금을 모금하여 400만원 상당의 교복 쿠폰 20장 및 클럽 회장 표창으로 해당 학교 졸업식에서 사천여중 10명, 사천중 10명 졸업생에게 매년 지원하고 있다.



(우주항공소년 또록이의 항공 이야기-87)

수상비행기(Hydroplane)

비행기는 착륙장치에 의해 육상기, 수상기, 수륙양용기로 분류되며, 용도면으로는 민간기와 군용기로 크게 구별된다. 육상기는 바퀴식 착륙장치를 가지고, 육상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를 말하며, 수상기는 플로트식 착륙장치 또는 정체를 이용하여 수상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말한다. 육상과 수상의 양용 착륙장치로 어디서나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를 수륙양용기라고 부른다.

수상비행기(Hydroplane, Seaplane, Floatplane)는 물 위에서 이착수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말하며, 플로트 또는 배처럼 생긴 동체인 정체를 등에 의해서 물 위에서의 부력을 얻는 비행

기로서 착수, 이수, 활수가 가능한 비행기를 말한다. 즉 수상비행기(Hydroplane)는 동체가 물에 닿지 않고, 동체 밑으로 뻗어나와 있는 다리에 부표(Float)를 달아 물 위에 뜨는 방식이다.

수상비행기의 한 종류인 비행정(Flying Boat)은 이전에 지상에 착륙장치와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비행기 동체를 배처럼 만들어 수면에서 이착륙하도록 설계한 비행기를 말하며, 실제 보트처럼 동체 밑바닥이 물에 닿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상기의 시초는 프랑스의 파브르(Fabre)가 설계한 이드라비온(Hydravion)호이다. 이드라비온호는 1910년 3월 28일 마

르세유 근처 호수에서 약 500m를 비행함으로써 처음으로 수상비행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험한 바다에서도 비행 가능한 실용적인 최초의 수상기는 미국의 커티스(Curtiss)가 1911년 개발하였다. 커티스가 설계한 최초의 수상기는 1911년 1월 25일 샌디에이고 해변에서 수상이착륙에 성공하였다. 그 해 7월 미국 해군이 A-1로 도입하여 군용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다. 제원으로는 길이 8.7m, 높이 2.6m, 너비 11.2m, 승무원 1명이며, 75마력의 엔진을 탑재하였다. 동체 아래와 양 날개 끝에 수상 이착륙을 위한 부표(Float) 3개를 달았다는 점

이 구조적 특징이다. A-1은 1912년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등에 수출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커티스는 "수상기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수상비행기는 1911년 미국의 G.커티스에 의해 처음으로 실용화되어 군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민간용으로도 널리 운용되고 있다. 삼들로 구성된 유명 휴양지에서는 관광 레저용으로 수상기가 운용되고 있으며, 주로 섬들 간의 이동 교통수단, 항공관광, 해양 레저스포츠용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상비행기는 기존 육상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하천이나 호수, 바다 등 적정 수변 공간만 확보되면 어디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형래 /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교수

삶의 각잡이

약속이란 '같이 관계하는 일'에 대하여 서로 그 장래를 결정하여 하다'란 뜻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리백장벌 모래'란 말이 있다.

옛날 고리장이는 늘 기한을 어겨 약속한 날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기한을 어길 때에 욕하는 말이다.

약속처럼 하는 위유나 이행하기 힘든 것도 없다. 그래서 약속을 사르트르의 말을 빌려 자기구속이라고 이른다. 일단 남과 약속한 일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혹시 법적 책임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만큼의 짐은 남는다.

약속이란 어리석은 자가 뒤집어쓰는 울가비라고도 한다. 우리는 기대감에서 약속을 하고 공포심에서 약속을 지킨다. 함부로 약속을 하는 사람은 그 실행을 무시한다. 약속과 실행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약속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결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약속이란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내일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뜻도 된다.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자는 그 실행에 있어서는 가장 충실하다. 내세(來世)의 약속 따위는, 이유도 모르고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구실이다. 인간은 행동을 약속할 수는 있어도 감정을 약속할 수 없다. 자기를 속이는 일 없이 영원의 사랑을 맹세하는 인간은 애정의 표시를 영원히 약속하는 것이다.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약속의 절반은 애당초부터 약속도 아니 되었던 것이다.

무책임한 약속이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본다. 약속을 팔고 다닌

약속(約束)

다든지 거짓말하는 것이 편리할지도 모르고 경솔하거나 순진한 유권자들의 표를 얻음지는 모른다. 그러나 약속 역시 화풀이할 줄을 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입에 올린 말이면 그 말에 충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열성과 진실로써 약속한 일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도덕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정도는 도덕의 표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고사·일화」에 언젠가 전인이 물었다.「차라리 죽을지라도 백성에게 신의를 잃지 말라고 하였으니, 과연 남과 약속하여 신의를 잃지 않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죽어가게 될 일이면 신의를 좇아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대인이 말씀하셨다.「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옛날에 미생(尾生)이 다리 기둥 밑에서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여자가 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 큰 물이 급히 밀어 닦쳤으나 미생은 신의를 잃지 않으려고 다리 기둥을 끌어 안고서 죽었으니, 심히 변통이 없는 자이다. 신의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백성과 같이 죽기로써 성을 지키기로 약속하고서 끝내 신의를 잃지 않았으니 이런 것은 가한 것이다. 대인(大人)은 반드시 신의를 지키려 한 것이 없고 오직 의(義)에만 따라서 할 뿐이다. 작은 신의를 지키면서 대의를 해친다면 어찌 죽히 도(道)라 하겠느냐. 경나과신(經難寡信) 무슨 일이나 승낙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성이 적어 위약(違約)하기 쉽다는 말이다. 이 어휘를 명심해야 한다.

김형태/사천읍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나는 사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다. 일상적으로 이름 모를 새 소리가 들렸고 온 산과 들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있어 감성지수를 풍부하게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시골이다 보니 먹는 음식은 밥을 비롯하여 대개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자연 속에서 얻은 무공해 식품이었고 텅달아 달래, 냉이, 쑥, 씬바귀, 두릅나물, 고사리 등등 다양한 산나물을 먹으며 지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어려서 먹은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을 다진 매개체가 된 듯해

가슴이 뿌듯하다. 시골의 오염되지 않은 풍토속에서 자라며 가공이 아닌 천연 음식들을 섭취하며 산 덕택에 지금 건강 하나만은 자신만만하다.

감기나 배탈은 모르고 성인병도 없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어린 시절에 먹던 음식이 폼과 정신을 튼튼하게 해준 보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만,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고 사는 일이 잦다. 의료비로 엄청난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갖가

지 질병은 삶의 품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이게 다 식생활의 잘못과 무분별한 탐욕 및 운동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간편하고 맛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화학첨가제가 든 가공식품을 너무나 즐기며 산다. 소우주나 마찬가지로 인체에 자연에 역행하는 인공적인 첨가물이 든 음식이 자주 들어가니 몸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람이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만사에 게을러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을 번거로워 한다. 그러면 자연히 건강에 적신호가 오

게 되고 삶의 질은 무병장수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

자연에서 채취한 무공해 산나물이나 채소를 즐겨 먹으면 몸은 소우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음식조절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잘 다져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 나갔으면 한다. 그 시발점은 육식 줄이기와 음식조절, 그리고 적절한 운동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다.

이옥출/부산 사하구

정서(情緒)

정서가 메말랐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의 거친 언행을 보고서 정서가 메말랐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미화해야 한다는니, 문화 예술 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한다는니 등 처방을 내리는 소리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꽃을 보았을 때 빨간색이니, 둥그니 하는 것을 인지하는 외에 즐겁다, 싫다 하는 등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가 정서(情緒)인 것이다.

음악을 듣고 마음이 안정되기

나 무아의 경지에 빠지는 것은 정서를 포함한 감정이 한 단계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징조이므로 정서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정서는 자연에 때론 흥분이라는 막연한 상태로 있다 점차 발달, 분화(分化)해서 쾌(快), 불쾌(不快)가 나타나고 성장하면서 쾌, 불쾌, 기쁨, 즐거움, 만족, 두려움, 분노, 질투, 격정, 애정 등으로 분화해간다.

정서는 대체로 사람의 본능이 충족될 때는 쾌, 충족되지 않을 때는 불쾌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속의 욕구, 기대 등의 정서의 본바탕이 충족되거나 저

지되는 등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여러 형태의 정서가 나타나고 이것이 인격과 성격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내부의 욕구에 대한 외부의 자극을 빠르게 수용하고 반응하는 조절이 잘 이루어진 정서순화는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서가 순화되지 못하여 정서의 불만정 상태에 있게 되면 인격, 성격, 일상 행동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므로 정서 순화는 다시없이 중요한 일이다.

정서 순화는 환경 미화나 시설의 완비가 최상의 방법이 아

니고 욕구의 충족과 기대의 성취가 최상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완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정제 의한 순화를 택해야 할 것이다. 욕구가 저지되거나 기대가 성취되지 않을 때라도 애정 속에서 생활하면 불만이나 실의를 조절하고 해소해 나가기 때문이다.

애정이 가득 찬 화목한 가정, 항상 대화하는 가족, 그리고 신뢰의 토대 위에서 애정이 교류되는 사제(師弟)간의 관계가 정서 순화의 지름길이다.

홍승봉/사천읍

파란 마음 '청심회'

“조 회장! 안되겠다. 음에 다녀와야겠다.”

30분쯤 후 전기회사를 운영하는 강 사장이 가져온 것은, 링거 줄 같은 호스가 길게 붙어있고 계기판이 달린 조그맣고 하얀 가스통 같은 훈증 해빙기계였다.

얼어있던 수도배관에 뜨거운 김이 나는 해빙기의 호스를 넣어 얼음을 녹이는 작업이었다.

두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작업 속에 땅속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물이 나온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지만 모두들 기쁨에 찬 흐뭇한 표정으로 환성을 지른다.

“그런다고 물 안 나와요! 얼어붙은 지 한 달이 다됐는데 날씨가 풀려야지 쉽게 녹는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동네 할아버지 몇 분이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신다.

지난 1월 23일,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와의 연락이 끊

긴지 오래 되어, 10평 남짓한 임시 컨테이너 박스에서 대학 1년생과 고 2학년 두 자매가 힘들게 살고 있는 공평면 안사 마을 소년소녀가장(자매가정) 00이네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청에서의 지원도 한계가 있고, 인근교회 장로님이 조 금씩 돌봐주시는데 그래도 부족한게 많아요. 전기판넬 장판이 새까맣게 타서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인데 어떻게 판넬과 장판 교체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 사례관리팀의 말에 떠오르는 단체가 있다.

전기, 배관, 건축, 석공, 설비 등 전문 건설 위주의 지역 업체와 일부 회사원들로 구성된 사천읍에 있는 친목봉사단체 청심회(회장 조규석, 건축업)다. 현재는 식당을 운영 하는 천 00 전 회장님께서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며칠 후 23일 작업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

원래 판넬과 장판 교체만 하

기로 계획된 일이었으나, 3주 이상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 수도까지 손을 본 것이다. 지난 여름과 가을에는 사남면의 붕괴위험의 탐배건조실을 밧출과 사다리 등으로 직접 철거하고, 서포면에서는 도배와 장판교체까지 회원들이 직접 해주었다고 누군가 귀뜸을 해주었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 알려지 않는 걸 원칙으로 지금껏 20년 가까이 봉사를 하고 있다. 그 원칙은 고수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건 더 이상 막지 않겠다. 회원들이나 우리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동기 부여가 더 된다면”

노자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란 말이 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고 만물을 맑게 하는 물...

오늘 함께 모여 움직이는 물을 본 것 같다.

강효원/사남면

깎지도 썬우지도 말고, 바르게 하자

활기찬 움직임으로 새벽을 여는 삼천포 서부시장으로 땅거미가 열리기 전에 오늘도 갔다. 역시 여기가 삶이 살아 숨 쉬는 곳이다.

벌써 경매장에서는 경매대가 반 이상 옮겨져 있는 것을 보면 이른 새벽 시간인데도 열심하들 살고 있으며 오늘도 열기갑들을 정하고 있다.

선어 장에서는 몇날 며칠을 밥 새며 잠은 고기들을 상자에 담은 채 그 넓은 바다에 줄지어 선열 해 둔 것을 보면 물에 실렸던 나로서는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아~ 고기 참 많다. 우리나라 항구마다 이렇게 잡으면 고기가 남아날까?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이렇게 잡다가 보면 고기 씨가 바닥나지 않을까?’라는 우자(愚者)의 생각을 잠시 하면서 경매장을 나서 보면 얼음 길은 리아카가 바쁘게 움직이고, 냉동된 고기를 오토바이에 싣고 사람들 틈새로 광무리에 연기 달고 굴에 운전하면서 굉음을 내고 달려는 소리에 시장 사람들은 손잡을 깨고 혼잡한 시장 길을

승용차 경적을 울리며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의 미간에 주름살 서게 한다. 내륙지방에서 살다가 항구도시로 옮겨오면서 고향을 만들어 놓고 조용하고, 풍광 좋고, 먹거리 많은 이곳에서 오늘도 숨 쉬며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고 있다.

물건을 버스에 싣고 머리에 이고 멀리서 온 여인네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순간 종개상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사고 파는 일들로 한참이나 시끌벅적하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생산자와 한 푼이라도 싸게 사려는 종개상들의 실랑이가 한창이다. 종개상들에게 넘기지 못한 여인네들은 갖고 온 물건을 남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해서 빨리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움직임이 바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퍼 놓은 물건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진열을 하고 있다.

“이것 얼마요?” 드디어 아내가 물건 흥정을 하고 있다. 깎지도 썬우지도 말고, 알

뜩한 주부로서 깎지도 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걸 아니라는 생각에 “여보, 뭘 깎지는 깎아? 그냥 사지! 전부 다 해봐야 알마데? 기 천원 밖에 안 되잖아.

다 사.”라고 아내에게 권유를 해서 다 사게 해 버렸다. 돌아오면서 나는 아내에게 “여보, 그러면 한 번 봤는가? 기 빠하고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정말 출가분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생각을 어떤가?”라고 물어 보았다.

자기도 그렇다는 말을 하면서 “세상이 어디 그런가? 모두가 바가지질 썬우는 세상에 나는 바가지질 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정말로 우리 모두는 ‘밭을 갈을 바르게 하고, 치를 갈을 바르게 치르는 사회가 되어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서로가 믿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에 오른다. 돈키호테 같은 생각일까?

이윤식/선구동

호떡의 유래

한국인치고 호떡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또한 호떡 하나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장이건 변화가건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엔 어김 없이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나 가게 등을 볼 수 있다. 호떡은 한국인의 국민간식이자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떡은 밀가루나 찰쌀가루를 반죽하여 설탕으로 소를 넣고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둥글납작하게 구워 낸다. 요즘은 호떡도 진화해 설탕에 해바라기씨, 땅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소를 넣어 맛이 아주 좋고 영양도 풍부해 별미로 대접받는 것도 많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호떡은 군침을 들게 하고 맛이 옅기로 소문난 호떡가게는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한다. 노릇하게 구운 호떡을 종이에서 싸서 먹으면 맛이 일품이고 허전한 입을 달래는 데도 훌륭하다. 호떡은 사계절 구분 없이 팔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

고 좋아하는 주전부리다.

그러면 호떡은 왜 호떡으로 불릴까? 호떡의 유래에 관해 살펴보면 조선 후기인 1882년에 임오군인이 일어나자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청나라 육군이 조선에 파견돼 들어왔는데, 이 때 청나라 상인 40여 명도 같이 들어왔다. 이후 청나라가 멸망하고 조선에 남아 있던 상인들은 생계를 위해 만두와 호떡 등의 음식을 팔게 되었다.

호떡의 ‘호(胡)’자는 지난날 중국 북방의 이민족을 일컫는 말로 오랑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밀을 ‘호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호주머니’의 ‘호’자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복에는 주머니가 없었는데 중국식의 주머니를 만들면서 호주머니로 불렸다.

호떡의 호는 중국을 뜻하는 말로 ‘중국인이 만든 떡’ 또는 ‘중국의 떡’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방식의 호떡에는 채소나 고기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나 식성에 맞게 풀이나 설탕 따위를 넣어서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호떡은 서민적이면서 소박한 맛을 풍기는 음식이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부담 없이 맛볼 수 있고 길거리에서 서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 걸어가면서 먹어도 되고, 연인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먹어도 기분이 좋다. 별다른 격식이 아니에 절이 필요하지 않고 때와 장소에 구애없이 입이 심심할 적에 먹기에 알맞다. 설탕이 녹은 끈적한 액체를 입가에 바르며 게걸스럽게 먹어도 흉물스럽지 않고 오히려 정겨워 보인다.

나들이 길에 호떡을 파는 가게를 만나면 한 번 둘러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배를 채우기에 적합하지 않고 간단하게 입맛을 충족하기에 적합하다. 설탕이 녹아 흐르는 꿀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호떡은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다. 호떡을 맛보며 살아가는 행복은 질박한 서민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고도 남는다.

박정도/부산 사하구

